

중국 주요 지역 의료서비스 시장 분석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박진희 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승은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최지원 연구원



중국 주요 지역 의료서비스 시장 분석

요약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변화〉

- ▶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2014년 7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외자 독자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의료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해왔음.
- 1인당 의료비총액이 매년 1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의료비 지출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2010년 민영 의료기관 설립 장려정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외자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과 2014년 베이징 등 7개 지역에 외자 독자병원 설립을 시범 허용하였으나, 2015년 4월 이를 제한하는 등 개방이 후퇴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남.
- 이 보고서는 외자 독자병원 설립이 허용된 7개 시범지역 중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의료서비스 시장과 정책 특징을 점검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지역별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정책 특징〉

- ▶ 의료서비스 시장이 성숙한 상하이는 '아시아 의료 중심도시' 로 발전하기 위해 의학기술 R&D 및 첨단 의료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노인간호·산부인과 등의 분야에 민간투자를 장려
- 의료인력이 풍부하고 우수 외자 병원이 많이 진출하여 경쟁이 치열하며, 연구중심병원 설립 및 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의료서비스 개발에 주력
- ▶ 장쑤는 민영병원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높은 고령화율에 대응하여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 확충을 촉진
- 공립병원 대비 민영병원의 비중이 높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민영병원이 많이 소재해 있으며, 노인 과 관련된 재활·양로 의료서비스 및 소아과·산부인과·건강검진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에 주력
- ▶ 광둥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홍콩·싱가포르·대만 의료기관의 진출이 많고 중의약도 발달
- 광둥성에 합자·합작 형태로 진출한 외자병원 10개 중 대부분이 홍콩·대만자본이며, 중의병원과 중·서의학 결합병원을 확대하고 중의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도 장려
- ▶ 의료산업 발전이 더딘 하이난은 기초 의료서비스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의료시장 규모가 작고 소득수준이 낮아 외자 의료기관의 투자가 미미했으나 최근 의료관광 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시작
- 현·향진의 보건소 확충과 가정의학과 의사 양성에 주력하고, '하이난 보아오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를 세계 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인·산모·영아케어 서비스, 의료미용, 건강검진 관련 선진 의료기구 유치 추진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시사점〉

- ▶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의료기관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발전수준 및 외자 의료기관 진출 상황, 의료서비스 육성방향과 투자장려 분야, 의료개방 및 의료단지 육성정책 등을 잘 살펴서 대중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상하이는 첨단 의료기술과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의료기관 진출이 적합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정신건강·노인간호·재활·아동·산부인과 분야 진출이 유리할 것이며, 장쑤는 중국 민영자본·민영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고령화 관련 양로·재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광둥은 홍콩·대만 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 광둥 중의학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서의학 결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진출 등을 모색하고, 하이난은 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기기 수입 및 외국 의료인력 취업관련 우대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련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
-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허용했던 외자 독자병원 진출을 최근 들어 철회하는 등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정책도 변화하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평가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3

차 례

1. 서론
2. 지역별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 가. 공급 측면
 - 나. 수요 측면
 - 다. 기진출 외자병원
 - 라. 소결
3. 지역별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 가. 상하이
 - 나. 장쑤
 - 다. 광둥
 - 라. 하이난
 - 마. 소결
4. 진출사례
 - 가. 개방정책 활용:
C-MER 데니스 램 안과(광둥),
아르테메드 병원(상하이)
 - 나. 新수요 및 지역 특성 활용:
이싱 보바스병원(장쑤),
주하이 메사추세츠 제너럴병원(광둥)
 - 다. 기진출 외자 병원 활용:
등관마리아산부인과 중한성형미용과(광둥)
 - 라. 오랜 경험·인지도 활용:
서울리거(상하이)
5.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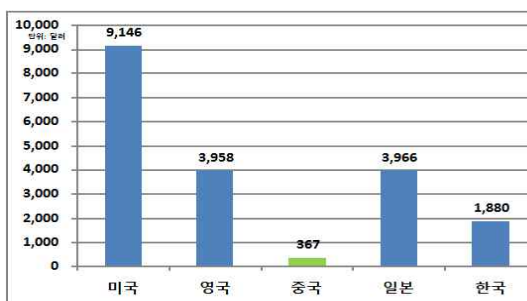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서론

■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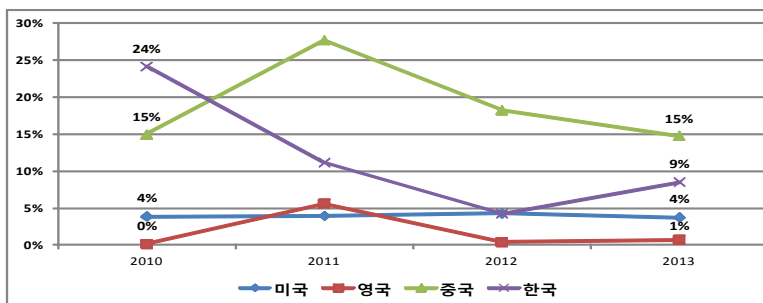
- WH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의료비총액(Health expenditure per capita)¹⁾은 미국, 한국 등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나 매년 15% 이상씩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²⁾
- 특히 고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 및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

그림 1.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총액(2013년)



자료: WHO statistics(<http://www.who.int/research/en/>).

그림 2.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총액 증가율(2010~13년)



자료: 좌동.

■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중국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⁴⁾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고급 의료 서비스와 같이 정부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병상 수를 인구 천 명당 6개(2013년 4.6개)로 늘리고, 건강서비스업⁵⁾ 규모를 8조 위안으로 확대 대할 계획⁶⁾
- 정부재정으로는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및 전문병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육성하는 '이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⁷⁾

1)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2장에서 '위생총비용'을 '의료비총액'으로 표기한 것과 통일하기 위해 '1인당 의료비 총액'으로 표기함(각주 16 참조).
 2) Franck Le Deu, Rajesh Parekh, Fangnin Zhang, and Gaobo Zhou(2012).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형우 연구원 인터뷰(2015. 5).
 4) 의료서비스산업은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경감·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서비스의 종류, 제공 주체, 시설규모 등에 따라 크게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 이병희, 강기우(2008).

의료서비스산업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공중보건의료업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보건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침구 등 유사 의료업, 조산원, 장기은행 등

5) 건강서비스업은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약품과 의료기기, 보건식품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임. 의료서비스산업만의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건강서비스업 수치를 살펴봄.
 6) 「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2015—2020年)」, 「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형우 연구원 인터뷰(2015. 5).

- 2010년 민영 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을 통해 노인간호·심리상담·구강위생·재활·건강검진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장려⁸⁾

■ 또한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 외자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을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을 확대

- 2010년 전까지 외국자본이 중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 중국과 합자·합작 형식만 설립 가능(독자 진출 불가) △ 외국 투자자는 70% 이하의 지분만 보유 가능 △ 최소 투자액은 2,000만 위안 이상 △ 경영기한 20년 이하 등의 진입장벽을 두었고, 이는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함⁹⁾
- 그러나 2010년 발표한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정책」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과 합자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지분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시범 실시한 후 시범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상하이시범구')에 외자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을 허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7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 하이난, 텐진, 푸젠)에 외자 독자 병원의 진출을 시범적으로 허용함.
- 2013년 상하이시범구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외자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을 허용하였고, 이에 독일 아르테메드 그룹(Artemed Group) 등의 외자 의료기관이 독자로 진출함.
- 2014년 7월 중국은 「외자 독자 병원 설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장쑤, 광둥, 하이난 등지에서도 외자 독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함.

■ 그러나 최근 상하이시범구가 외자 독자 진출정책을 철회하는 등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도를 다시 낮추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15년 4월 상하이시범구는 외자 의료기관이 합자·합작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정책을 조정하고, 2014년 지정된 7개 시범지역의 경우 외자 독자 병원 설립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나, 상하이시범구 상황에 비춰볼 때 외자 독자 병원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⁰⁾

표 1. 중국의 외자 의료기관 관련 주요정책

외자병원 관련 주요정책	발표시기	주요 내용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안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2000. 7	- 최소 투자액 2,000만 위안, 중국 측 최저 보유지분 30% - 형식: 합자·합작만 가능 - 경영기한(의료기관 운영 가능 기간): 20년
「사회자본(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에 관한 의견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	2010. 12	-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의 출자 비율에 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 -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시험적으로 인정하여 점차 개방 -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심사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성 정부로 이양

8) 中国国务院办公厅(2010. 12. 3),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中国国务院办公厅(2012. 10. 9), 「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9) 중국 진출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투자 요건으로 인해 의료기술이 뛰어난 중소형 의료기관 진출이 곤란하고, 어렵게 진출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된 70%의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경영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중국 측 투자자에게 휘둘리게 되는 일이 많았음. 기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인터뷰(2012. 12).

10) 광둥·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및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관계자 인터뷰(2015. 5).

표 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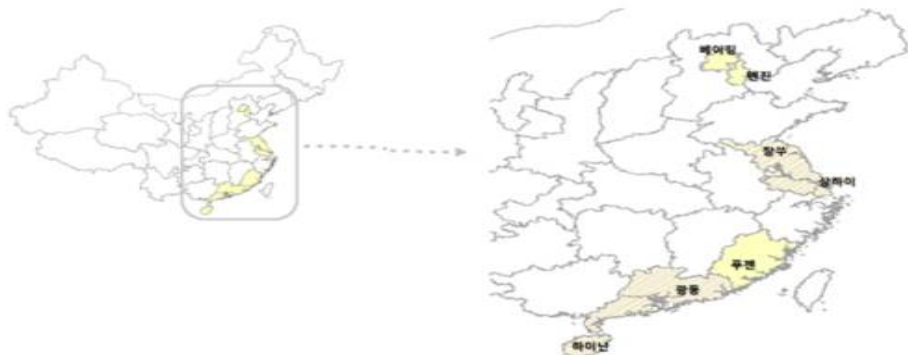
외자병원 관련 주요정책	발표시기	주요 내용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외자 독자 의료기관 관리 잠행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2013. 11	- 상하이시범구 내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 - 독자 의료기관은 △최소 투자액 2,000만 위안 △경영기한 20년
「외자 독자 병원(시범지역) 설립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2014. 7	- 7개 시범지역(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장쑤, 푸젠, 하이난)에서 외자 독자 병원 설립 허용 - 최소 투자액 및 경영기한은 미정, 각 지역이 결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年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 3	- 외자 의료기관은 합자·합작 형식 진출만 가능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15. 4	-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자 의료기관은 합자·합작 형식 진출만 가능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4); 최창환, 김정덕(2014); 野村高志·郭望(2014).

■ 본 보고서에는 2014년 시범으로 지정된 7개 지역 중 상하이, 장쑤, 광둥, 하이난의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지역별 의료서비스 시장과 정책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중국은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업 발전 수준이 상이하며 7개 시범지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개방도 역시 지역별로 다름.
- 최근의 정책 조정으로 7개 시범지역에서 외자 독자 병원 설립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이기는 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방적인 이들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7개 지역의 의료서비스 시장 및 정책 관련 특징 한국 및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 사례 여부 등을 검토하여 4개 지역을 선정함.
 - 상하이는 중국 본토 최초로 홍콩·마카오·대만 이외의 외자 독자 병원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장쑤성은 7개 시범지역 중 민영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광둥성은 홍콩·마카오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이 가장 먼저 허용되어 이들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며, 하이난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업 발전 수준이 낮으나 최근 아시아 최고의 ‘국제관광섬’으로 발전하고자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우대정책을 적극 마련
-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에는 의료인력(의사·간호사 등)의 진출도 포함되나, 본고에서는 한국의 관심 분야인 의료기관의 진출에 초점을 맞췄으며, 다양한 의료기관 형태 중 중요도 및 비중이 높은 병원·의원의 진출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3. 7개 시범지역의 위치



주: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7개 외자 독자 병원 허용지역이며, 빗금 친 지역은 본고의 연구대상지역임.
 자료: ArcGI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지역별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가. 공급 측면

- 연구대상인 4개 지역 모두 병원·문진부·진료소 등 상업 의료기관의 분포가 중국 전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상하이에는 다른 지역보다 중대형 의료기관(병원)이 많고, 하이난은 전문병원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음.
- 상하이, 장쑤, 광둥, 하이난의 병원·문진부·진료소가 전체 의료보건의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 40%, 30%, 39%로 중국 전체 평균(23%)보다 높음.
- 상하이에는 병원이 전체 의료보건의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중국 평균(3%)보다 훨씬 높고 다른 3개 지역(5~10%)에 비해서도 높아, 중대형 의료기관의 발전이 빠른 상태
- 하이난은 전체 의료보건의구에서 전문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0.4%로,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중국 평균(0.5%)을 하회

표 2.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의료기관 현황(2013년)

(단위: 개)

	병원				문진부·진료소	요양원	기타	전체 의료보건의구 수
	종합병원	중의병원	전문병원	미분류				
전국	15,887	3,015	5,127	680	195,176	183	754,330	974,398
상하이	328	185	97	46	2,088	3	2,182	4,929
장쑤	1,490	991	331	168	9,427	14	18,577	30,998
광둥	1,222	740	326	156	11,989	14	33,388	47,835
하이난	191	148	21	22	1,545	2	3,082	5,011

주: 1) '병원'은 한국의 병원급에 해당하는 중·대형 의료기관(20병상 이상)이며, '문진부', '진료소'는 한국의 의원급에 해당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임.

2) '기타'는 대부분 보건소, 질병예방통제센터, 위생감독기관과 같은 공공 의료기관으로 구성됨.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 중국이 공립병원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5년간(2008~13년) 각 지역 공립병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장쑤는 공립병원의 비중이 특히 낮고 하이난은 공립병원의 비중이 특히 높음.¹¹⁾
- 최근 5년간 중국 전체 병원 대비 공립병원의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데(2008년 73% → 2013년 54%) 반해, 민영병원의 비중은 확대 추세(2008년 27% → 2013년 46%)에 있음.
- 2015년 5월 발표된 「도시 공립병원 개혁 시범지역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2017년까지 모든 지급(地级)시²⁾ 이상 도시의 공립병원 개혁을 실시할 계획(2010년 17개 → 2014년 34개 → 2015년 100개 → 2017년 지급 시 이상 확대)¹³⁾

11)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의 공립·민영 비중 관련 데이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병상 수 30개 이상)'만 수록되어 있어, '병원'의 데이터만을 포함하여 분석함.

12) 중국의 2급 행정구역 단위로, 1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4개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를 제외한 비교적 큰 대도시, 성도(省都), 부성급도시(副省级城市)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286개임.

13) 「个人支出将不超30%公立医院改革试点扩大」(2015. 5. 19); 「延边州有望成为公立医院改革试点城市」(2015. 5. 19); 「城市公立医院改革,有三大看点」(2015. 5. 18).

- 2013년 장쑤성 민영병원의 비중(64%)이 중국 평균(46%)과 다른 3개 지역보다 높고, 공립병원 개혁이 활발히 추진되어 민영 의료기관의 발전이 빠름.¹⁴⁾
- 2013년 하이난과 광둥의 전체 병원 대비 공립병원의 비중은 각각 84%와 63%로 전국 평균(54%)보다 높으며, 하이난은 민영 의료기관이 낙후

그림 4. 중국의 최근 5년간 공립·민영병원 수 추이(2008~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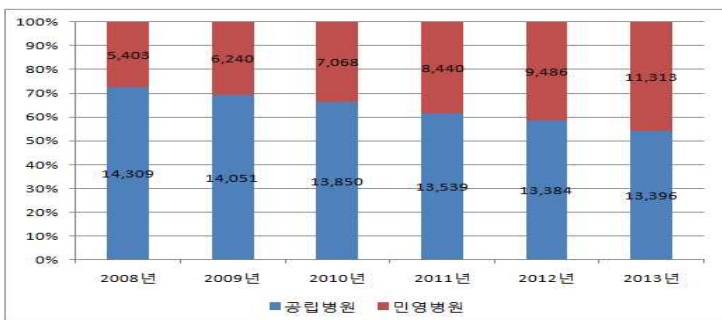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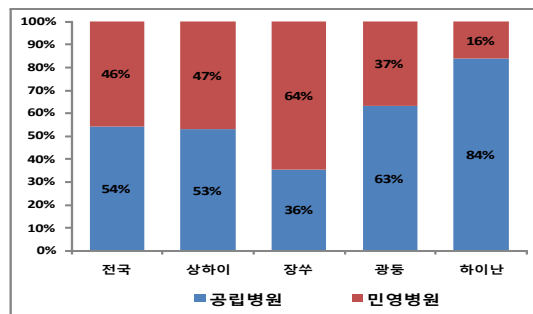


그림 5.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공립·민영병원 비중(2013년)



주: 외자병원은 별도로 수치가 발표되지 않으며 민영병원에 포함됨.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각 연도). 자료: 좌동.

■ 상하이, 장쑤, 광둥은 의료인력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하이난은 의료인력이 부족

- 중국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공통적으로 부족하며, 2020년까지 인구 천 명당 의사·간호사 수를 각각 2.5명, 3.14명으로 확대할 계획임.¹⁵⁾
- 상하이, 장쑤, 광둥의 인구 천 명당 의사·간호사 수는 중국 평균은 물론 중국의 2020년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임.
 - 상하이는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가 4.05명 및 6.12명으로, 각각 전국 평균의 2배, 2.2배인 반면, 하이난은 인구 천 명당 의사·간호사 수가 전국 평균을 하회

표 3.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의료인력 수(2013년)

지역	(단위: 명)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
전국	1,503,184	2.04	2,041,367	2.78
상하이	34,563	4.05	52,239	6.12
장쑤	91,332	2.23	130,065	3.18
광둥	112,207	2.40	152,426	3.26
하이난	9,315	1.84	13,980	2.76

주: 1) OECD나 WHO 등 국제기구의 집계방법을 참조하여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로 집계함.

2)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각 지역의 인구 수를 토대로 저자가 계산함.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14) 2014년 중국 10대 민영병원 중 장쑤성 소재 병원 2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민영병원의 경쟁력이 높음. 「2014“中国非公立医院·竞争力100强”榜单」(2015. 3. 28).

15) 「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2015—2020年)」.

- 상하이(14%)와 하이난(9%)의 경우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과 병상 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고, 광둥과 하이난은 높은 출생률¹⁶⁾을 반영하여 산부인과 병상 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음.

표 4.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주요 진료과목별 병상 수 및 비중(2013년)

(단위: 개(%))

지역	소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안과	기타
전국	4,578,601 (100%)	1,143,582 (25%)	976,029 (21%)	378,339 (8%)	256,707 (6%)	261,814 (6%)	79,917 (2%)	1,482,213 (32%)
상하이	94,722 (100%)	25,016 (26%)	17,928 (19%)	5,990 (6%)	3,177 (3%)	13,274 (14%)	1,190 (1%)	28,147 (30%)
장쑤	286,183 (100%)	70,454 (25%)	59,847 (21%)	22,822 (8%)	14,555 (5%)	17,419 (6%)	4,217 (1%)	96,869 (34%)
광둥	294,219 (100%)	62,427 (21%)	68,568 (23%)	32,081 (11%)	19,629 (7%)	19,643 (7%)	4,321 (1%)	87,550 (30%)
하이난	24,555 (100%)	5,493 (22%)	4,582 (19%)	2,227 (9%)	1,193 (5%)	2,284 (9%)	469 (2%)	8,307 (34%)

주: 1) '기타'는 통계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진료과목 중 6개 상위 진료과목을 제외한 수치임.

2) 붉은색은 상위 3개 진료과목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병상 수 대비 해당 진료과목 병상 수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나. 주요 측면

- 의료시장 규모 지표인 '의료비총액(卫生总费用)¹⁷⁾'은 광둥성(2,185억 위안)이 가장 많고 하이난(180억 위안)이 가장 적으며, 장쑤성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상하이, 장쑤, 광둥 세 지역의 의료비총액 증가율은 중국 평균(15.5%)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의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장쑤가 22.6%로 가장 빠른 추세

-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료비총액(2012년 기준)은 사회자본지출이 정부예산지출과 개인현금지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하이난은 정부예산지출의 비중이 다소 높은 상태

- 하이난의 정부예산지출 비중은 37.1%로 중국 평균(30%)보다 높는데, 이는 하이난은 민영 의료기관 및 민영 의료보험의 발전이 늦어 정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16) 2013년 각 지역 출생률은 상하이 8.18%, 장쑤 9.4%, 광둥 10.7%, 하이난 14.6%임. 『中国统计年鉴2014』.

17) 중국의 '위생총비용(卫生总费用)'은 한국의 '국민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의료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대리지표로 종종 쓰임. 본 보고서에는 중국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의 지표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위생총비용'을 '국민의료비'가 아닌 '의료비총액'으로 의역함. 위생총비용은 △ 정부예산지출 △ 사회자본지출 △ 개인현금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예산지출은 정부부문이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및 의료보험보장지출, 위생·의료보장 행정관리, 인구·계획생육 사무지출 등 각종 사업경비를 포함하며, 사회자본지출은 정부지출 이외의 기관·조직에 의한 위생사업 관련지출로, 사회의료보험지출, 민간건강보험비, 민간의료기관 지출, 민간기증 원조 등을 포함하며, 개인현금지출은 도시·농촌 주민이 각종 의료위생서비스를 받을 시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각종 의료보험제도를 향유하는 주민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스스로가 지불하는 비용임.



표 5.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의료비총액 및 GRDP 대비 의료비총액(2012년)

지역	의료비총액(억 위안)	GRDP 대비 의료비총액(%)			전년대비 증가율(%)
		정부예산지출(억 위안/%)	사회자본지출(억 위안/%)	개인현금지출(억 위안/%)	
전국	28,119	8,431(30.0%)	10,030(35.7%)	9,656(34.3%)	15.5
상하이	1,092	232(21.3%)	646(59.2%)	213(19.5%)	17.4
장쑤	1,892	483(25.6%)	863(45.6%)	544(28.8%)	22.6
광둥	2,185	587(26.9%)	858(39.9%)	739(33.9%)	18.0
하이난	180	66(37.1%)	59(33.0%)	54(30.0%)	10.2

주: 1) 본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2014년의 통계연감에 2013년이 아닌 2012년의 수치가 게재되어 있음.

2) 지역별 의료비총액 통계는 2011년부터 집계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

■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상하이, 장쑤, 광둥은 1인당 GRDP 및 1인당 의료보건분야 지출액, 주민 평균 진료횟수가 중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하이난은 다른 세 지역과의 차이도 크고 중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 상하이의 1인당 GRDP는 중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고, 장쑤와 광둥도 중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나, 하이난의 1인당 GRDP는 중국 평균을 하회하여 아직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임.
- 1인당 의료보건 지출액 역시 상하이, 장쑤, 광둥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하이난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음.
- 주민 평균 진료횟수는 상하이가 9.7회로 제일 높고 광둥(7.1회), 장쑤(6.2회)도 전국 평균(5.4회)을 상회하나, 하이난(4.7회)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표 6.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도시주민 1인당 의료보건분야 지출액 및 평균 진료횟수(2013년)

지역	1인당 GRDP(위안)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1인당 의료보건분야 지출액(위안)	주민 평균 진료횟수(회)
전국	41,908	26,955	1,118	5.4
상하이	90,092	43,851	1,350	9.7
장쑤	74,607	32,537	1,122	6.2
광둥	58,540	33,090	1,123	7.1
하이난	35,317	22,928	734	4.7

주: 1인당 의료보건분야 지출액은 주민이 실제 의료보건분야(의료위생보건의약품, 의료보건서비스, 의료위생설비·용품가공수리비 등)에 지불한 금액으로 의료비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의료비총액과는 다른 개념임.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中国统计年鉴2014』.

■ 주요 진료과목별 진료횟수는 내과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차이를 나타냄.

- 상하이의 경우 내과 진료비중이 29%로 전체 평균(21%) 및 다른 3개 지역보다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료과목별 진료횟수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순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광둥과 하이난은 외과 진료비중보다 소아과·산부인과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7.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주요 진료과목별 진료횟수 및 전체 진료과목 대비 비중(2013년)

(단위: 만 회(%))

지역	소계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기타
전국	267,902 (100%)	56,490 (21%)	25,653 (10%)	24,453 (9%)	24,386 (9%)	8,078 (3%)	7,954 (3%)	120,886 (45%)
상하이	12,889 (100%)	3,761 (29%)	1,358 (11%)	1,106 (9%)	926 (7%)	552 (4%)	333 (3%)	4,853 (38%)
장쑤	20,785 (100%)	4,419 (21%)	2,114 (10%)	1,952 (9%)	1,967 (9%)	696 (3%)	535 (3%)	9,102 (44%)
광둥	32,692 (100%)	5,798 (18%)	2,270 (7%)	3,957 (12%)	3,594 (11%)	1,010 (3%)	718 (2%)	15,347 (47%)
하이난	1,443 (100%)	304 (21%)	115 (8%)	165 (11%)	179 (12%)	32 (2%)	39 (3%)	609 (42%)

주: 1) '기타'는 통계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중 6개 상위 진료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2) 붉은색은 상위 3개 진료과목을 나타냄.

자료: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다. 기진출 외자 의료기관

■ 상하이는 외국자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빨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하이난은 진출 초기 단계이고, 장쑤와 광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음.

- 상하이는 2003년부터 미국, 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의료기관이 많이 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외자 독자 병원도 중국 내에 처음으로 진출함.
- 장쑤는 2008년 진출한 대만을 시작으로 대만과 한국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¹⁸⁾
- 광둥은 홍콩의 자본력과 지리적 인접성에 힘입어 홍콩 독자병원이 가장 먼저 설립된 지역으로, 이 외에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 등이 많이 진출했고 최근에는 미국 병원이 주하이에 투자를 확정하였음.
- 하이난은 2015년 처음으로 외자병원이 진출하는 등 관련투자가 더디게 진행

■ 상하이, 장쑤, 광둥, 하이난에서는 지역별로 외자의료기관의 진출과목이 다소 다르며, 특히 한국은 종합병원보다는 성형 등에 특화

- 상하이는 비교적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자병원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은 성형·피부미용의 진료과목에 진출해 있음.
- 장쑤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은 주로 이비인후과, 재활요양 분야에 집중됨.
- 광둥은 외국자본이 종합병원을 비롯한 산부인과, 안과 분야에 진출해 있고, 한국은 성형미용, 치과 분야에 진출해 있음.
- 하이난은 최근 오스트리아와 중국 투자자가 합자한 종합병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선진의료기술을 활용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임.

18) 장쑤성에 진출한 외자병원은 많지 않으나, 최근 여러 나라 병원들이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및 북유럽 병원들도 장쑤성 병원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음. 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터뷰(2015. 5).

표 8.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주요 외자 의료기관 현황¹⁹⁾

지역	진출 도시	진출국	기관명	계약자		진출 형태	진출 시기	진료 과목	주요 특징
				외국 측	중국 측				
상하이	미국		동광국제병원 (东方国际医院)	US Healthcare Management Enterprises	상하이동광병원 (上海东方医院)	합자	2003	종합 병원	- 상하이 첫 중·외 합자 의료기관 - 루자주이(陆家嘴) 금융지구 개발에 따른 진출
			메이화 산부인과 (美华妇产)	New Life Ob/Gyn Group	화산병원 (华山医院)	기술교류 합작	2003	산부인과	- 하버드의대의의 기술교류 협력을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상하이 허무자병원 (上海和睦家医院)	Chindex Group	상하이중심병원 (上海中心医院)	합자	2004	종합 병원	- 베이징 허무자병원 성공에 따른 추가 진출 - 상류층 대상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싱가포르		파크웨이 화잉의원 (百汇华鹰)	Parkway Health	화산병원 (华山医院)	합자	2007	내과·부인과	- 싱가포르 대표 의료그룹인 파크웨이 헬스의 중국 첫 투자 의료기관 - 의원급 규모이나 내과·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전문과목 진료
	대만		허신병원 (禾新医院)	렌신(联新) 국제의료그룹	없음	독자	2012	종합 병원	- 중국·대만 ECPA 체결 후 진출한 대만 첫 독자 의료기관 - 외국인 및 중국인 중산·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독일		아르테메드 병원 (阿特蒙医院)	Artemed Group	없음	독자	2014	영상의학·정형외과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 첫 외자 독자 의료기관 - 의료영상센터, 근육·뼈 질환센터 등을 건설하는 1단계 프로젝트 추진 중
	한국		서울리거 (首尔丽格)	엔지니스 (Enjiness Ltd.)	이자 (意佳)	합자	2014	성형·피부미용	- BK성형외과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측 투자자가 합자형식 정식 진출 - 약 2,000평의 대규모 부지에 성형·피부 등 6개 센터 및 스파 운영
장쑤	난징 (南京)		난징밍지병원 (南京明基医院)	밍지그룹 (明基集团)	난징 국유자산 관리공사 (南京国资集团)	합자	2008	종합 병원	- 중국 첫 중·외 합자 3급 병원 - 3억 위안 투자, 1,000병상 규모 - 현재 1일 방문환자 2,500명, 입원환자 850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
			난징통런예술 음성센터 (南京同仁艺术嗓音中心)	예술이비인후과	난징통런병원 (南京同仁医院)	기술교류 합작	2014	이비인후과	- 중국 최초 음성전문병원 - 부유층 대상, 중국 전 지역에서 환자 방문 - 예술이비인후과 성대수술 기술의 높은 국제적 인지도에 따른 중국 측의 협력 제안으로 설립
	쑤저우 (苏州)		쑤저우 밍지병원 (苏州明基医院)	밍지그룹 (明基集团)	쑤저우 첨단기술개발구	합자	2013	종합 병원	- 난징의 성공을 바탕으로 추가 진출 - 9억 위안 투자, 1,500병상 규모
	이싱 (宜兴)		지우루칭 보바스병원 (九如城Bobath康复医院)	보바스기념병원	중따디찬 (中大地产)그룹	위탁경영	2012	재활·요양	- 주거복합시설 개발 중인 중국 부동산 회사가 보바스병원에 협력 제안 - 재활병원·요양원 설계 자문, 2015년 개원 예정
광둥	둥관 (东莞)	싱가포르·대만	둥관마리아 산부인과 (东莞玛丽亚妇产医院)	싱가포르국제산모·유아경영학원(Singapore 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 of Maternal and Infant)·대만 중산병원	없음	합자	2008	산부인과	- 산부인과 및 여성 전문병원 - 중국과 대만 간 교류 활성화 - 대만동포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둥관마리아 산부인과 중한	원진성형외과·한국 벨라쥬여성의원	둥관 마리아산부인과	합자	2010	성형미용	- 한국병원이 둥관마리아산부인과와 협력해 진출 - 정형외과·피부관리·성형 등 진료

19) 중국정부는 외자의료기관 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각 지역에 진출한 외자 의료기관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본 보고서에는 각종 보고서·언론보도에 소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 진출(독자 및 합자·합작, 프랜차이즈·위탁경영)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정보의 한계로 누락된 외자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음. 하이난의 경우 하이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의 정보를 참고해 정리함.



표 8. 계속

			성형미용과 (东莞玛利亚 妇产医院中韩 整容美容科)						
선전 (深圳)	홍콩		C-MER Dennis Lam Eye Hospital (深圳希玛 林顺潮 眼科医院)	C-MER 국제안과 의료그룹	없음	독자	2013	안과	- 홍콩 최초 독자 진출 - 국제적으로 유명한 안과외과가 원장
	한국		즈메이치과 (致美齿科)	한국 측이 홍콩에 설립한 지사를 통한 투자	없음	합자	비공 개	치과	- 심미 치료·임플란트 전문병원 - 한국인 원장 상주 치과 - 후이저우(惠州)에도 분원 진출
주하이 (珠海)	미국		Massachuset ts General Hospital China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광둥성중의병원 (广东省中医院) · 주하이 형진귀켄강화의 료투자유한공사 (珠海横琴国际 康华医疗投资有 限公司)	합작경영	2015 (설립 준비 중)	종합 병원	- MGH가 해외에 최초로 설립한 병원 - 최고급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하이 난	하이 커우 (海口)	오스트 리아	하이난 유니케어 국제병원	바메드 (Vamed) 그룹	하이항(海航) 그룹	합자	2015	종합 병원	- 하이난 첫 중·외 합자 의료기관 - 2015년 3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구축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국제인증을 받은 종합병원을 설립해 중 국·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예정

주: 진출시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5); 이창진(2015) 및 각종 자료 참고하여 저자 정리.

라. 소결

■ 상하이인 중국 대표 도시답게 중대형 병원 및 의료인력이 많고 여러 외자병원이 진출해 있는 등 의료서비스 시장 발전이 가장 빠른 지역이며, 정신과와 같은 현대적 질환이 많고 1인당 GRDP 및 가처분 소득이 매우 높아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외자병원이 2003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대만, 독일 독자 병원이 중국 내 최초로 진출하는 등 우수 외자 병원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임.

■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화동지역에 위치한 장쑤는 민영병원의 발전이 빠르고, 20) 의료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만 대형병원이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음.

- 장쑤는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민영병원이 많이 소재해 있고, 의료비총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 민영병원이 중국 진출 외자병원 중 처음으로 3급 병원 규모(500병상 이상)로 진출

■ 인구가 많고 경제가 일찍 발전한 광둥성은 4개 지역 중 의료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홍콩, 싱가포르 등 인접국의 진출이

20) 민영병원의 발전이 빠르다는 것은 외자 병원에 주는 의미가 복합적임. 이미 다양한 민영병원이 발전해 있어 외자 병원이 진출할 공간이 좁아졌다고 볼 수도 있으며, 사회자본(민영,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진입장벽(공립병원의 텃세)이 비교적 낮다고도 볼 수 있음. 또한 외자 의료기관이 중국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출 시, 공립뿐만 아닌 민영병원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음.

많으며, 산부인과 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됨.

- 의료비총액이 4개 지역 중 최대이며, 높은 출산율을 반영하듯 산부인과 병상 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병원 진출이 많으며, 홍콩 독자 병원이 중국 내 처음으로 진출함.

■ 하이난은 의료시장 규모·의료 인력·주민소득 수준 등 전반적인 지표가 여타 3개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외자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태임.

- 의료비 총액, 1인당 GRDP,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각각 상하이의 16%, 40%, 45%에 불과하고, 기진출한 외자기업은 2015년 3월 진출을 확정된 오스트리아 바메드 그룹이 유일함.

표 9.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의 의료서비스 시장 주요 특징

지역	공급·수요 특징	외자의료기관의 진출 특징
상하이	- 중대형 상업 의료기관 다수 소재 - 의료인력이 매우 풍부하고 정신과 병상 수 비중 높은 편 - 주민 소득수준이 매우 높음	- 외자병원이 일찍이 진출하여, 우수 외자병원이 많음 - 외자(대만·독일) 독자 병원이 중국 내 처음으로 진출 - 최근 한국 대형 성형병원이 합자형식으로 진출
장쑤	- 의료시장 규모가 큰 편이며 빠르게 증가 - 민영병원 발전 빠름 - 주민 소득수준 높은 편	- 대만 대형병원이 합자형식으로 성공적으로 진출 - 최근 한국 병원이 이비인후과, 재활 분야에 진출
광둥	- 의료시장 규모 크고 공립병원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 - 산부인과 병상 수 비중 높은 편 - 주민 소득수준 높은 편	-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병원 진출이 많음 - 홍콩 독자 병원이 중국 내 처음으로 진출 - 한국 치과, 성형미용 진출 활발
하이난	- 의료시장 규모 작고 의료인력도 부족 - 전문병원·민영병원 발전이 취약하며, 산부인과 병상 수 비중 높은 편 - 주민 소득수준이 낮음	- 기진출 외자의료기관이 1개뿐

자료: 본문 내용 정리.

3. 지역별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가. 상하이

■ 상하이는 주민건강지표가 선진국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기본적인 질병치료 시스템이 확립된 상태이며, 도시주민의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의료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함.

- 2014년 상하이시 주민의 기대수명은 82.5세로 중국에서 가장 높고, 한국(81.3세) 수준을 상회
- 노인간호 및 정신건강 관련 병상 수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성형미용 분야 서비스 발전을 장려하는 등 도시주민의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 주민 건강정보·진료이력을 담은 전자의료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구축하여 의료기관이 이를 활



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노인간호·건강검진·원격진료 서비스 발전에 주력함.

- 연구중심병원, 의과학연구원 등을 설립해 의료 연구·기술을 강화하고, 첨단 의료기술 및 설비를 갖춘 의료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표 10. 상하이시의 주요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정책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상하이시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실시의견 (中共上海市委·上海市人民政府关于贯彻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意见的实施意见)」	2011	- 민영·외자 의료기관 설립 비준 절차를 명확히 해 의료서비스업 참여 확대 - 의료관광, 건강관리, 첨단의료, 성형미용 등의 현대 의료서비스 발전 촉진
「상하이시 위생 개혁·발전 12·5 계획 (上海市卫生改革与发展“十二五”规划)」	2012	- 노인간호·정신건강 관련 시스템·병상 수 확대 - 사회자본에 의한 아동·재활·노인간호 분야 전문의료기관 및 첨단 의료서비스기구 설립 장려 -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해 국제 우수 의료기관·첨단의료설비 유치 - 연구중심병원, 의과학연구원·위생발전연구센터 등 고급 R&D 기구를 설립하여 의학연구 강화 - 주민 건강정보·진료기록 등을 담은 전자의료기록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진료 방지 - 공립병원의 특수(고급) 병실 및 원내원(shop in shop) 폐지
「상하이시 사회의료기관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실시의견 (关于进一步促进本市社会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	2013	- 노인간호, 정신건강, 재활, 아동, 산부인과 등 공급이 부족한 전문과목에 민영 의료기관 설립 장려. 특히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설립 시 대출 지원 - 합자·합작 형식의 외자 의료기관 진출 허용, 자본 제한 점진적 철폐
「상하이시 생활형 서비스업 발전촉진을 위한 의견 (市政府关于促进本市生活性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2014	- 건강서비스업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건강관리'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 인터넷 빅데이터 및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재활·노인간호·산모영아간호·건강검진·원격진료 등 신형 건강서비스업 발전 지원

자료: 「上海市卫生改革与发展“十二五”规划」; 「中共上海市委、上海市人民政府关于贯彻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意见?的实施意见」; 「市政府关于促进本市生活性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 상하이시는 일찍부터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를 장려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 노인간호 △ 정신건강 △ 재활 △ 아동 △ 산부인과 분야에 민영 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2003년부터 민영 의료기관 설립 장려정책(关于本市促进社会办医发展民办医疗机构的若干意见-试行-)을 시행함.
- 노인간호 및 정신건강 등 최근 수요 급증으로 의료기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민간자본의 전문병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비영리 의료기관 설립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음.²¹⁾

■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이 독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시 독자 진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함(표 11 참고).

- 2013년 상하이시범구 출범 시 구내에 외자 독자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으며, 2014년에는 외자 독자 의료기관 진출 시 투자액(2천만 위안 이상)과 경영기한(20년 이하) 제한도 철폐할 것이라 발표하는 등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도를 중국 내 최고 수준으로 높임.²²⁾

21) 민간자본이 노인간호, 재활, 정신건강, 소아과, 산부인과 분야에 비영리 의료기구를 새로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경우, 관련 재정부처에 대출이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关于进一步促进本市社会医疗机构发展的实施意见」(2013. 2. 7).

22) 2014년 독자 병원 진출을 허용한 7개 시범지역이 20병상 이상의 '병원'만 가능하게 한 것에 비해 시범구에는 중소형 의료기관도

- 그러나 2015년 4월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자 의료기관은 합자·합작 형식으로만 진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외자 의료기관이 시범구에 진출할 메리트가 거의 없어진 상태임.
- o 시범구는 아직 배후단지 조성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 위치해 의료 인력 및 환자의 왕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독자 진출 허용과 같이 차별화된 혜택이 없을 경우 외자 의료기관의 유인이 낮음.²³⁾

■ 상하이 및 인근지역 주민의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푸둥(浦东)공항과 홍차오(虹桥)공항 인근에 각각 △ 상하이국제의학센터 △ 신흥차오국제의료센터와 같은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두 의료단지 모두 상하이와 창장삼각주(长三角) 지역의 고소득층을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고, 외지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은 공항 인근에 설립됨.²⁴⁾
- 제1인민병원, 푸단대 부속병원 등 상하이의 유명 병원들이 두 의학센터 운영에 협력하고 있으며, 파크웨이와 MD Anderson 같은 해외 유명 병원이 상하이 신흥차오국제의료센터에 진출함.
- 상하이국제의학센터에는 활발한 의학연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학교육센터가 조성되었으며, 상하이 신흥차오국제의료센터는 의료기술이 뛰어난 외국 의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의 비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제공할 계획임.

표 11. 상하이시 주요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명칭	설립시기	주요 특징 및 육성 방향
상하이 국제의학센터 (上海国际医学中心)	2014	- 상하이푸둥공항 근처에 위치 - 2014년 운영 시작한 상하이 첫 고급의료단지 - 국제병원센터·의학교육센터를 구축해 임상치료와 의학연구·교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 - 심혈관·정형·성형·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전문과목과 500개 병상 운영 중 - 루이진(瑞金)병원, 제1인민병원 등 상하이의 8개 유명병원이 협력해 건설
상하이 신흥차오 국제의료센터 (上海新虹桥国际医学中心)	2015 (예정)	- 상하이홍차오공항 근처에 위치 - 중국·해외 우수 의료서비스 기관을 유치해 아시아 일류 국제의료센터 조성 - 외국 선진 의료자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의사의 취업·비자 처리, 의료기기·약품 수출입의 원활화를 위한 우대정책 지원 예정 - 화산병원, 푸단대 부속 소아과병원, 파크웨이국제종합병원(싱), MD Aderson(美) 등 유치

자료: 각 의료단지 홈페이지(<http://www.simcgroup.com/>, <http://www.nhqmed.com/>).

나. 장쑤

독자진출을 허용해 개방도가 제일 높았음. 이에 여러 외자기관이 진출에 관심을 보였으며, 양로센터로 유명한 독일의 아르테메드그룹이 2014년 7월 독자 진출하였고, 시험관아기 관련 기술로 유명한 일본의 '용위안성(永遠幸)'도 독자 진출할 예정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관계자 인터뷰(2015. 5).

23) 중국 기진출 한국 의료기관 관계자 인터뷰(2015. 5).

24) 상하이국제의학센터는 푸둥공항 인근이라는 점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진료비가 비쌀뿐 아니라 시 중심지에서 멀다는 점 때문에 최근 병상 이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医药网(2015. 6. 10).

■ 장쑤성은 의료기술 수준이 뛰어나고 의료서비스 개혁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임.

- 장쑤성은 ‘중국의약도시(中国医药城·China Medical City)’, ‘마산(馬山)생물의약공업원’ 등 다양한 R&D 센터와 의료관련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고, 난징에 소재한 군 병원에서 신의학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중국 내에서 의료 기술 수준이 뛰어난 지역으로 꼽힘.
 - 장쑤성 타이저우(泰州)시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의료·바이오 클러스터인 중국의약도시에는 의약품·의료기기·백신·처방약·중의약·건강식품 등 약 5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육군총사령부가 소재한 난징의 군병원에서는 줄기세포와 같은 신의학기술 연구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짐.²⁵⁾
- 또한 장쑤성은 2015년 1월 안후이(安徽), 푸젠, 칭하이(青海)성과 함께 ‘중합의료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의료서비스 개혁을 위한 시범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²⁶⁾

■ 장쑤성의 의료서비스 발전정책은 △ 공립병원 개혁 및 민영병원 장려 △ 소아과·산부인과·양로 등의 진료과목 중점육성 △ 의료정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장쑤성은 공립병원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2015년 5월에는 11개 도시²⁷⁾가 3급 공립병원²⁸⁾ 개혁 시범도시로 채택되었음.²⁹⁾
- 장쑤성은 부실한 공립병원을 민영화하고, 상대적으로 의료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신구(新区), 교외, 위성도시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민영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자본의 민영병원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³⁰⁾
 - 한 예로 수치엔(宿迁)시에는 민영병원이 많이 진출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5분 내에 의료진찰이 가능한 ‘15분 건강권(15分钟健康圈)’이 조성되고 있음.
- 장쑤성은 소아과,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성형미용, 건강검진, 양로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 소아과 전문의 육성을 위해 12·5 규획기간 동안 소아과 전문의 수를 10% 늘리고, 성형미용, 양로 등의 사회자본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특히 장쑤성은 ‘장수도시’로 유명한 난통(南通)시가 있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진전되어 재활·양로 관련 의료서비스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³¹⁾
- 2014년 장쑤성 정부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 발전계획을 공표하였고, 의학분야에서도 전자의료기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화를 꾀하고 있음.³²⁾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형우 연구원 인터뷰(2015. 5).

26) 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터뷰(2015. 5).

27) 11개 도시는 난징시, 우시(无锡)시, 쉬저우(徐州)시, 창저우(常州市)시, 쑤저우(苏州)시, 난통시, 련윈강(连云港)시, 화이안(淮安)시, 옌청(盐城)시, 양저우(扬州市)시, 타이저우시임.

28) 중국은 「병원 등급분류 관리표준」에 따라 병원을 1~3등급으로 분류함. 3급병원은 500개 이상의 침상수를 지니는 병원으로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과 유사함.

29) 「江苏11市入选公立医院改革国家联系试点城市」(2015. 5. 22).

30) 「江苏综合医改方案:构建分级诊疗 鼓励社会办医」(2015. 2. 28).

31) 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터뷰(2015. 5).

32) McKinsey & Company(2010).



표 12. 장쑤성의 주요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정책명	발표 연도	주요 내용
「장쑤성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의 장려·인도에 관한 실시의견 (江苏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³³⁾	2011	- 신규, 교외, 위성도시 등에서 의료기구 설립 시 비공립기관(민영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사회자본의 비영리성 의료기구 설립 장려 -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전문분야에 외자 의료기구 설립 장려 - 사회자본의 공립병원 제도개혁 참여 및 공립병원의 민영화 장려
「장쑤성 12·5 위생발전규획의 통지 (江苏省“十二五”卫生发展规划的通知)」	2011	- 공립병원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 - 의료정보화 추진
「장쑤성 12·5 아동의료사업 발전 규획 (江苏省“十二五”儿童医疗事业发展规划)」 ³⁴⁾	2012	- 소아과 서비스 체계 개선, 2·3급 소아과병원의 신설 및 확장 장려 - 소아과 전문의사 육성을 위해 12·5 기간 동안 소아과 전문의 수 10% 증가 - 쑤저우대학 부속 소아과병원원구병원(苏州大学附属儿童医院园区总医院), 난징시 소아과 병원(南京市儿童医院分院)의 건설공정 가속화
「12·5 시기 위생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十二五”时期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实施意见)」	2012	- 원칙상 공립의원의 규모 확장 금지 - 여성, 어린이 전문의원 및 종합의원 내 산부인과·소아과 신설 - 민영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획 제정 시 민영병원에 편의 제공
「장쑤성 건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실시의견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2014	- 의료기구 설립을 장려하고 특히 사회자본의 비영리성 의료기구 설립 독려 - 성형미용, 건강검진, 양로 등 수요가 많은 영역에서 사회자본 투자 우선지원 - 2020년까지 민영 의료기관의 병상 수, 서비스량 20% 이상 달성

자료: 「江苏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江苏省“十二五”卫生发展规划的通知」; 「关于“十二五”时期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实施意见」; 「江苏省政府关于加快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江苏省“十二五”儿童医疗事业发展规划」.

■ 장쑤성은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 난징장닝의료서비스센터 △ 창저우국제의료관광선행구 △ 우시국제의료원 등의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있음.³⁵⁾

- 난징장닝의료서비스센터는 2013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장쑤성의 최대 의료단지로서, 1,500병상 규모의 시설에 의료 R&D, 재활, 예방·응급 의료서비스 기관이 집적되고 있음.
- 창저우국제의료관광선행구는 창저우 우진(武进)경제개발구에 조성하고 있는 의료단지로서, 고급 전문진료, 웰니스, 양로 등의 의료서비스와 예술·문화 서비스가 결합된 국제의료관광선행구로 개발되고 있음.
- 우시국제의료원은 외자 의료기관이 없는 우시에 해외유학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태평양그룹과 삼성물산이 협력해 건설하고 있는 의료단지로서, 외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외국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료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³⁶⁾

표 13. 장쑤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명칭	설립시기	주요 특징 및 육성 방향
난징장닝 의료서비스센터 (南京江宁医疗服务中心)	2015 (완공예정)	- 2013년 10월 착공 - 총 23만 m ² 면적의 부지에 1,500개 병상, 200만 명의 종사자를 수용 가능하며, 2,300대가 주차 가능한 대규모 의료서비스센터를 조성 - 의료, R&D, 재활(康复), 예방 및 응급 의료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첨단 의료서비스 센터로 육성

33) 「江苏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2011).

34) 「江苏省颁布“十二五”儿童医疗事业发展规划」(2011).

35) 이들은 특별한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특구’가 아니라, 의료관련 기관의 집적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클러스터’ 성격의 의료단지임.

36) 우시는 ‘우시신구(无锡新区)’에 해외 유학을 마친 고급 인재를 유치해 태양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표 13. 계속

명칭	설립시기	주요 특징 및 육성 방향
창저우 국제의료관광선행구 (常州国际医疗旅游先行区)	2015 (완공예정)	- 창저우 우진(武进)경제개발구 내 위치, 계획 면적은 90km ² 임. - 6대 기능을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 의료건설링, 양로 시범기지 등으로 육성 o 6대기능구: 생명기술산업원, R&D중점구, 공공전시교역구, 산업서비스플랫폼구, 건강양로서비스 체험구, 생태거주구 - 고급전문진료, 웰니스, 보건, 양로 등의 의료서비스와 예술·문화 등의 서비스가 결합된 국제의료 관광선행구로 육성
우시국제의료원 (无锡国际医疗园)	2015 (개원예정)	- 콜롬비아태평양그룹과 삼성물산이 협력 건설 중인 500개 병상, 1.5억 달러 규모의 국제의료단지 - 가정의학과, 웰니스 센터, 전문과목 센터 4개, 종합서비스빌딩 등으로 구성 - 국제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그린카드를 소지한 해외 귀국 창업인이 우시에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의료보험 적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시스템 구축 예정

자료: 「未来三年, 中国将有近20个医疗中心(健康城)拔地而起」(2014. 7. 7); 「江宁投14亿建医疗中心 服务200万人口」(2013. 10. 2); 「南京江宁医疗服务中心开建」(2013. 10. 1); 西太湖国际医疗产业园, <http://www.wcz.gov.cn/NewsView.asp?NewsID=1312>(검색일: 2015. 5. 6); 「无锡国际医疗园签约落户」(2013. 11. 8).

다. 광둥

■ 광둥성은 홍콩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가장 먼저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상당수의 홍콩·대만 자본이 유입되었음.³⁷⁾

- 광둥성에는 △ 광둥중의약대 등이 유명한 광저우시 △ ‘중국 남방 생물 의약 도시(中国南方生物医药, China Southern Biomedicine City)’³⁸⁾를 건설 중인 포산시 등이 소재함.
 - o 특히 포산시는 포산 하이테크 산업개발단지 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중국 남방 생물 의약 도시’ 설립을 통해 바이오제약산업의 R&D, 의료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 광둥성은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개방적이며, 과거부터 외국자본과의 합자·합작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임.
 - o 광둥성은 일찍이 2000년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집행방법」을 발표하여 외국투자자와 중국의 합자병원 설립을 허가해왔음.³⁹⁾
 - o 2010년 7월 CEPA 협정 체결로 이미 홍콩·마카오 자본이 광둥성에 독자로 외래환자 진료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⁴⁰⁾ 2011년 1월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에 홍콩·마카오·대만 자본의 외국 독자 의료기관 설립이 시범적으로 허용됨.
- 광둥성에 합자·합작 형태로 진출한 외자병원 10개 중 대부분이 홍콩·대만 자본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안과, 성형 등 특정 진료과목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병원의 진출이 활발한 편임.⁴¹⁾

■ 광둥성은 민간자본 및 사회자본의 참여를 통해 민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며, 간호서비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중

3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형우 연구원 인터뷰(2015. 5).

38) Fosh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N.d.).

39) 광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웨이자선 교류협력처 부처장 인터뷰(2015. 5).

40) 「香港和澳门服务提供者在内地上设立独资医院管理暂行办法」에는 3급병원 설립 시 최소 3,000만 위안, 2급병원 설립 시 최소 2,000만 위안의 투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41) 광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웨이자선 교류협력처 부처장 인터뷰(2015. 5).

의약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⁴²⁾

- 광둥성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립병원 및 민영병원 개혁을 추진 중이며, 특히 민간자본과 사회자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민영 의료기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공립병원 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공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며, 광둥성 주민들의 의료지출비와 의약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광둥성 내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 우수한 간호서비스 시범프로젝트 △ 장기간호서비스모델 시범운영 △ 간호관리트레이닝제도 △ 간호인력양성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중의약 관련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광둥성이 중의약 발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2018년까지 중의병원 및 중·서의학 결합 병원(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3개 건설하고, 중의약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중의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장려함.

표 14. 광둥성의 주요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정책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광둥성 민영 의료기관 발전에 관한 의견 (广东省民营医疗机构蓬勃发展)」	2011	- 홍콩·마카오의 광둥성 내 의료위생서비스의 교류협력 범위 확대 - CEPA 협정 체결 후, 홍콩·마카오 자본의 광둥성 내 독자 외래진료부 설립 허용 - 민영 의료기관에 우대정책을 제공하여 민간자본 투자 확대 - 민간자본과 우수한 자원의 결합을 허용하여 의료환경 개선 추진
「광둥성위생사업발전12·5규획 (广东省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	2012	- 공공위생체계 수립 강화를 통한 공공위생서비스 능력 제고 - 건전한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및 의료서비스 능력 제고 - 기본의료보장제도 보완을 통한 일반인의 의약비 부담 경감 - 공립병원 개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신형 관리체계 메커니즘 수립 - 중의약 강성(强省) 건설 추진, 중의약서비스 능력 향상 -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의료산업 다원화 발전 추진
「광둥성 12·5 시기 의료위생체계 개혁 심화에 관한 실시방안(广东省“十二五”期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实施方案)」	2012	- 기본의료보장제도 개선, 의료보장능력 및 관리수준 제고 - 현금 공립병원 개혁 가속화 및 도시 공립병원 개혁 추진 - 위생자원 배분, 도농간·지역간 위생발전 격차 감소 -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 - 중의약서비스 능력 향상
「광둥성 간호사업 발전규획 강요(2011~15년) (广东省护理事业发展规划纲要(2011—2015年))」	2012	- 간호사 숫자 확대, 병원 간호사 배치 확대, 간호사 역량 강화, 임상간호사 풀 안정화, 병원 임상간호 수준 제고 - 공립병원 간호관리개혁 확대 - 간호관리 트레이닝제도 실시 및 장기간호서비스체계 수립

자료: 「广东省民营医疗机构蓬勃发展」; 「广东省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 「广东省护理事业发展规划纲要(2011—2015年)」.

■ 광둥성에 소재한 의료단지는 선전시와 광저우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선전시는 현대 서비스업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광저우시는 ‘건강도시’ 라는 목표하에 적극적으로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선전 첸하이선강(前海深港) 현대서비스업 합작구(现代服务业合作区)⁴³⁾는 국제적인 수준의 금융, 물류, 정보기술서비스,

42) 광둥성은 일찍부터 중의 약재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중국 내 중의대학 중 2위인 광저우 중의대가 소재해 있는 등 중의학 육성 및 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임.

43)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http://www.szqh.gov.cn/>(검색일: 2015. 5. 29).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구로, 최첨단 전문의료·보건·원격의료와 심리상담·치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됨.⁴⁴⁾

- ‘행복한 광저우,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는 광저우시에는 △ 광저우의료센터(广州医疗中心) △ 광저우국제헬스산업단지(广州国际健康产业城) 등의 의료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이 단지들은 현재 부지와 기초 인프라가 조성 중인 개발 초기단계로, 외국 투자자 유치방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2013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광저우국제헬스산업단지’는 건강검진, 중약(中药), 신약, 의료기기 등 관련기업의 의약품 생산지구, 중의약 R&D 지구, 건강양생(健康养生)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⁴⁵⁾

표 15. 광둥성 소재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명칭	설립시기	주요 특징 및 육성 방향
광저우의료센터 (广州医疗中心)	조성 중	- 단기목표(5년): 종합병원 수준 제고, 전문병원 수준 강화, 첨단의료 및 기술 향상 - 중기목표(5~8년): 역내 의료기관 공동발전, 광저우 건강의료프로젝트전략 협력관계 구축, 중의재건, 의료미용, 의료기기 R&D 등 관련사업 발전 도모 - 장기목표: ‘의-산-학-연’ 일체 종합 의료사업 마련, 광저우시를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헬스의료도시로 조성 ⁴⁶⁾
광저우 국제건강산업단지 (广州国际健康产业城) ⁴⁷⁾	2013	- 2013~20년(1기: 2013~15, 2기: 2015~20) ⁴⁸⁾ - 148km ² 의 계획면적에 35만 3천 명(2020년까지 18만 2천 명)의 상주인구 유치 - 건강서비스, 건강서비스지구, 의약품생산지구, 직업교육지구, 건강양생지구, 의약학 R&D, 서비스지구 및 주거지구, 7개 직업기술학교 등 구축
선전첸하이선강(前海深港) 현대서비스업 합작구 ⁴⁹⁾	2010	- 금융·물류·정보기술서비스·의료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 발전 도모 - 특히 최첨단 전문의료·보건·원격의료와 심리상담·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육성 - 2020년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예정

자료: 「广州国际健康产业城发展规划」, 「国务院关于支持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开发开放有关政策的批复」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하이난

■ 하이난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산업 발전이 더딘 곳으로, 주요 건강지표를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있음.

-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⁵⁰⁾ 등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5년까지 이들 수치를 「중국위생사업발전12·5규획」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12명 및 22명으로 개선하고자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부 정기검진, 입원분만 등을 장려하고 있음.⁵¹⁾
- 현(县)·향진(乡镇)·사구(社区)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확대하고, 일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全科) 의사 1,300명 이상을 새롭게 양성해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⁵²⁾

44)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产业准入目录」(2013).

45) 「广东广州国际健康产业城发展规划」(2011).

46) 「未来三年, 中国将有近20个医疗中心(健康城)拔地而起」(2014. 7. 7).

47) 「广州国际健康产业城发展规划」(2011).

48) 「白云区: 广州国际健康产业城控制性详细规划开始二次」(2011).

49)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http://www.szqh.gov.cn/>(검색일: 2015. 5. 29).

50)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중에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수이며,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출산 도중 숨지는 사람의 수를 가리킴.

51) 2014년 중국 전체 영아 사망률은 8.9명, 임신부 사망률은 21.7명임.



■ 민영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통한 전문병원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각 분야에 민영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나 특히 △ 심혈관·당뇨병 △ 항문·대장 △ 구강 △ 노인질환 분야에 각각 300 병상 수준의 대형 민영병원 진출과 의료관광·재활 분야의 민영 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는 등 전문병원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표 16. 하이난의 주요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정책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하이난성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장려·인도 실시의견(海南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	2011	- 사회자본(외자 합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독자 포함)의 종합병원·특색 있는 전문병원·중의병원·의료관광·재활 의료기관 설립 장려 - 의료기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농촌, 도·농 연결 지역, 신도시)에 의료기관 설립 시 지원 강화 - 투자 장려 프로젝트: △ 300병상 규모의 심혈관·당뇨 전문병원 △ 300병상 규모의 항문·대장 전문병원 △ 300병상 규모의 구강 전문병원 △ 300병상 규모의 노인질환 전문병원
「하이난성 12·5 규획 기간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를 위한 규획 및 실시방안(海南省十二五期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划暨实施方案)」 ⁵³⁾	2012	- 영아 사망률(14.3 → 12명) 및 모성사망비(24.5 → 22명) 개선 - 현(县)·향진(乡镇) 보건소 등 기층(基层)의료기관 확대 - 가정의학과(全科) 의사 중심의 의료인력 양성 - 공립 의료기관의 지나친 사업 확장 및 진료비 인상 통제, 현대식 병원경영시스템 도입

자료: 「海南省十二五期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划暨实施方案」; 「海南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

■ 2014년 관광객이 2,800만 명에 달하는 하이난성은 한국의 제주도와 같은 중국 내 대표 휴양지라는 지역 특색을 살려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의료단지인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 이하 ‘선행구’)’ 개발을 시작함.

- 선행구는 하이난성 동편에 위치한 충하이(琼海)시의 동남쪽, 보아오포럼 개최지 인근에 조성될 계획임.
- 노인·산모·영아 대상 종합간호서비스, 의료미용 및 안티에이징, 고급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세계 일류 의료관광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2015년 현재 개발에 착수한 단계로 향후 3년간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4~6년 안에 의료기관 설립을 전반적으로 완성해 진료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선진 의료기관이 ‘선행구’ 내에서 의료행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우대정책을 제공할 예정임.

-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필요한 경우 선행구 관리위원회가 의료기기 반입을 적극 지원하고, 약품 수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제공함.
- 省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의료인은 3년간 의료 행위가 가능함(기간 만료 시 재허가).

52) 2011년 하이난성의 가정의학과 의사는 418명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53) 다른 지역의 「위생사업발전12·5규획(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에 해당하는 「海南省区域卫生发展规划」이 웹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하이난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5 규획(海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2011—2015年)规划)」의 보건·의료 분야 내용으로 대체 정리하려 하였으나, 그 내용이 「하이난성 12·5 규획 기간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를 위한 규획 및 실시방안」과 거의 일치하여 본 표에 별도로 정리하지 않음.

- 외자 의료기관·기업이 합자·합작 형식으로 의료기관 설립 시 지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진 의료기술 구비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독자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 명시

표 17.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조성 계획

위치	충하이(琼海)시 동남편(보아오포럼 개최지 근처)
규모	약 20km ²
주요 목표	- 국제 선진 의료기기와 첨단설비를 갖춘 세계 일류 의료관광 산업단지 조성 - 의료관광 관련 국제 협력·교류 플랫폼 - 전체 산업 규모 500억 위안 이상, 상주 관광객 2만 명
중점 육성분야·프로젝트	- (첨단의료) 선진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항암치료센터, 줄기세포이식센터, 정형외과, 치과, 호흡기 질병 치료센터, 재생의료센터, 혈액병센터, 심혈관병원 설립 - (노인·산모·영아 케어) 건강관리·여가활동·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갖춘 노인간호센터, 산후조리·신생아 지능개발 서비스를 갖춘 산부인과 병원 설립 - (의료미용·안티에이징) 선진기술로 성형·치아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의료미용센터, 안티에이징센터 설립 - (건강검진) 악성종양·심혈관·유전자 등 분야에 국제적 수준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검진 기구 2~3개 유치
주요 우대정책	-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진료에 필요한 경우 반입 허가작업 적극 지원 - 수입 약품 샘플 검사는 6시간 내, 등록 검사는 20일 내 완료 - 외국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인)은省外 위생부처 비준 후 3년간 의료 행위 가능, 기간 만료 후 재등록 신청 가능 - 외자 의료기관·기업이 중국과 합자·합작 형식으로 의료기관 설립 허용, 지분 제한 없음 - 국제 선진 의료기술·설비를 갖춘 외자 독자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 설립 점진적 허용 - 수입관세가 비교적 높은 의료기기 및 약품 수입 시 재정부 비준 후 수입관세 인하 가능

자료: 「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医疗产业发展规划纲要(2015-2024年)」(2015. 3. 17); '하이난성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설명회' 자료(2015. 5. 18).

마. 소결

- 상하이 '아시아 의료 중심도시' 로 성장하고자 의학기술 연구·개발 및 국내외 우수 의료서비스 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노인간호 등의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연구중심병원 설립,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하이신홍차 오국제의료센터'를 아시아 일류 국제의료센터로 조성하고자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음.
 - 정신건강·건강관리·성형미용·노인간호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건강·노인간호·재활·아동산부인과 등에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을 장려
- 장쑤는 고령화 진전으로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 확충에 주력하고 공립 의료기관 개혁 및 민영 의료기관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우시시에 해외 유학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우시국제의료원을 조성 중임.
 - 소아과·산부인과·건강검진·성형미용 등의 의료서비스를 육성하고 노인과 관련된 재활·양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보고 이에 대응도 경주
 - 11개 도시가 '3급 공립병원 개혁 시범도시'로 채택되어 공립병원 개혁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성형미용·건강검진·양로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영역에 민영자본의 진출을 장려

- 광둥은 중의약 기술 발전 및 서비스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콩, 대만 등에 독자 진출을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개방적이며, 선전 첸하이선강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의병원 및 중·서의학 결합병원을 확대하고 중의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
 - 2000년에 일찍이 합자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CEPA와 ECFA를 통해 홍콩, 대만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가장 먼저 허용하였으며, 첸하이선강에 조성되고 있는 현대서비스업 합작구에 최첨단 전문의료·보건·원격의료·심리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함.

- 하이난은 기초 의료서비스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종합병원·전문병원·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자본의 진출을 장려하고,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중임.
 - 현·향진 등에 보건소를 확충하고, 일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 종합병원·중의병원·의료관광·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 민영 의료기관 설립과 심혈관·당뇨·구강·노인질환 관련 대형 전문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를 장려
 - 최근 개발이 시작된 '선행구'를 세계 일류 의료관광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노인·산모·영아 관련 간호서비스, 의료미용·안티에이징,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구 유치를 위해 의료기기 반입 및 외국 의료인력 등록절차 간소화

표 18. 상하이·장쑤·광둥·하이난 의료서비스 정책의 주요 특징

지역	주요 특징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건강관리·성형미용·노인간호 등의 새로운 의료수요 충족 위해 노력 - '아시아 의료 중심도시' 가 되기 위해 의학기술 연구 및 첨단기술 활용한 의료서비스 발전에 노력 - 상하이신홍차오국제의료센터에 해외 우수 의료서비스 기관 유치 노력 - 노인간호·정신건강·재활·아동·산부인과에 민영 의료기관 설립 장려 - 중국에서 가장 먼저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을 허용(2013. 10.~2015. 3.)할 정도로 개방에 선도적
장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과·산부인과·건강검진·성형미용 등의 새로운 의료수요 충족 위해 노력 -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령화율로 재활·양로 관련 의료서비스 확충에 노력 - 공립병원 개혁 선도적 추진 - 비영리성 의료서비스, 의료자원 부족지역, 성형미용·양로 분야에 민간자본 투자 장려 - 우시국제의료원에 외자 의료기관 유치 및 외국 의료보험 적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희망
광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약 강성(强省)' 건설 추진 및 중의약서비스 능력 향상 노력 - 간호인력 양성, 장기간호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노력 - 민간자본과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료산업 다원화 및 민영 의료기관 확충 노력 - 선전 첸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 합작구에 현대서비스업과 연계한 첨단의료서비스 육성 노력 - 홍콩·마카오·대만 자본에 합자·합작 및 독자를 일찍이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개방적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등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노력 - 종합·전문·중의 병원 및 재활·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에 민간자본의 진출 장려, 특히 심혈관·당뇨·대장·구강·노인질환 관련 전문병원 투자 장려 - 최근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개발 시작, 노인·산모·영아 대상 간호서비스, 의료미용과 안티에이징, 고급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산업단지 조성 및 외국자본 유치에 주력

자료: 본문 내용 정리.

4. 진출사례

가. 개방정책 활용: C-MER 데니스 램 안과(광둥), 아르테메드 병원(상하이)

- C-MER 데니스 램 안과(이하, C-MER 안과)는 CEPA로 인한 개방정책을 활용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둥성 선전(深圳)에 독자 진출하였으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⁵⁴⁾
 - CEPA로 홍콩 독자병원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13년 3월 홍콩 의료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함.
 - 2012년 대만계 허신병원이 상하이에 진출한 이래 두 번째 외자 독자 의료기관이며, 광둥성 정부는 CEPA 체결 이후 홍콩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홍콩 의사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과의 이동거리가 짧은 선전을 진출지로 택함.
 - 데니스 램(林順潮) 원장을 비롯한 홍콩 의사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⁵⁵⁾
 - 예약 진료와 같은 선진 의료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경영현황이 좋은 편임.
 - 100% 예약 진료가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짧고 진료시간이 충분한 점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음.
 - 2014년 환자 수, 수술 건수 등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민영 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이 대다수이나 2014년에 '선전시 사회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립 의료보험 가입 환자도 증가 추세
- 독일의 아르테메드(Artemed) 그룹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개방정책을 활용해 독자로 진출했으며,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의료센터를 설립 중임.
 - 2013년 시범구에서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서 진출하였으며, 대만·홍콩계를 제외하면 중국에 독자 진출한 첫 외국 의료기관임.
 - 시범구에 국제 선진수준의 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의료영상센터, 메디컬트레이닝센터, 검진센터, R&D센터 등 7개 의료센터를 설립 중으로,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심혈관질환, 복강질환 관련 진료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
- 개방정책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은 이들 두 병원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의료 기술·설비를 보유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광둥성 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 및 C-MER 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C-MER 안과가 홍콩계 의료기관 최초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장이 아태지역 안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제적으로 의료기술을 인정받는 등 의료수준이 높았기 때문임.
 - 아르테메드 그룹 역시 재활치료와 영상진단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며, 환자의 움직임 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함.

54) C-MER 데니스 램 안과 류장녕 행정원장 인터뷰(2015. 5).

55) 의료진의 2/3는 중국 본토 의사로, 이들은 병원에 상주함.

나. 新수요 및 지역 특성 활용: 이싱 보바스병원(장쑤), 주하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광둥)

- 중국 내 양로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바스병원은 중국 중따디찬(中大)⁵⁶⁾그룹과 협력해 고령화율이 높은 장쑤성 내 요양시설 건설 사업에 '위탁 경영' 방식으로 진출함.⁵⁶⁾
 - 중국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원, 재활치료원과 같은 양로서비스업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중따디찬그룹은 장쑤성 이싱(宜興)시에 주거복합시설(재활병원, 실버타운, 요양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있으며, 보바스병원은 이 중 재활병원·요양시설 개원에 필요한 건축설계 자문(병실 배치, 환자 동선 등) 및 의료 인력 교육, 병원 운영 등을 위탁받음.⁵⁷⁾
 - 보바스병원은 성남시에서 10여 년간 재활병원과 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중국 측이 먼저 협력을 의뢰하였으며, 보바스 측은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운영수수료, 이익액의 일정비율을 브랜드 사용료로 중따디찬 그룹으로부터 받게 됨.
 - 장쑤성 이싱시를 진출지로 선택한 것은 파트너인 중따디찬 그룹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나, 고령화율과 소득수준이 높아 재활·요양 병원 진출에 유리하다는 지역적 특성도 반영
 - 장쑤성은 고령화율이 높아 재활·요양 병원 진출에 유리하며, 이싱시 사업부지는 주변에 배후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향후 주 고객이 될 주민 소득수준도 높은 편임.
-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은 중국 중앙정부 및 광둥성 정부가 중의학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에 맞춰 광둥성의 중의병원과 협력해 중의와 서양의학이 결합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설립을 준비 중임.
 - 중국정부는 중·서의학 결합을 통한 중의학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둥성 정부는 중의학 서비스 향상에 주력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은 광둥성 대표 중의병원인 광둥성 중의병원(广东省中医院)과 협력해 주하이(珠海)에 외국인 및 중국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병원 설립을 추진 중임.
 -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은 1811년 보스턴에 설립된 미국의 3대 병원 중 하나이자⁵⁸⁾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으로 지명도가 높은 곳으로, 광둥성 중의병원을 협력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동서양 의료가 결합된 치료분야 특화를 위해서임.
 - 병원은 주하이 형친신구(横琴新区)에 설립될 예정으로 병원 설립 초기에는 약 500개 병상을 보유하고 향후 800~1,000개 병상 규모로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⁵⁹⁾
 - 이 병원은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의 최초 해외진출 케이스이자 광둥성 중의병원이 해외 대형병원과 공동 운영 협약을 맺은 최초의 병원이며, 주요 고객은 외국인투자자 및 여행객, 중국 고소득층 등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투자규모 등의 정보는 미공개⁶⁰⁾
 -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의 선진기술과 고급 서비스가 중의학과 결합하여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됨.

56) 이싱 보바스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5).

57) 최근 한국 의료기관의 對중국 진출은 이와 같이 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 위탁경영 방식의 진출이 활발한 편임.

58) *China Daily*. (2014. 10. 8)

59) 『羊城晚报』. (2015. 3. 25)

60) *China Daily*. (2014. 10. 8)

- 미국 병원 관계자는 중국 환자들에게 최고급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광둥성 중의병원은 이 병원 설립을 통해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의학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⁶¹⁾

다. 기진출 외자 병원 활용: 등관마리아산부인과 증한성형미용과(광둥)

- 한국 원진성형외과와 벨라주여성의원은 광둥성 등관 소재 마리아산부인과와 협력해 등관마리아산부인과 내에 증한성형미용과(东莞玛利亚妇产医院中韩整形美容科)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출함.⁶²⁾
 - 증한성형미용과 개설 당시인 2010년은 우리나라 자본의 광둥성 내 독자병원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기진출한 외자의료기관(등관마리아산부인과)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출함.
 - 진입장벽이 높거나 한국 병원의 단독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외자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선택함.
 - 2010년 8월 30일 개설한 증한성형미용과는 등관마리아산부인과와 한국 원진성형외과의 박원진 원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정형외과·피부관리·성형 등을 진료 중임.⁶³⁾
 - 증한성형미용과가 소재해 있는 등관마리아산부인과⁶⁴⁾는 2008년 싱가포르 국제 산모·유아 경영학원(the Singapore 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 of Maternal and Infant, 新加坡国际妇婴管理学院)과 대만 중산병원(Taiwan Chungshan Hospital)이 광둥성 등관시에 합작하여 설립한 병원으로, 2010년부터 진료를 시작함.⁶⁵⁾
 - 대만의 유명 종합병원인 중산병원이 싱가포르 교육기관과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자 합작형태로 진출하였으며, 여성과 영유아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기치하에 중국·대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둥성에 거주하는 대만 동포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됨.⁶⁶⁾
 - 이 병원은 진료 외에도 등관시 불임여성들을 위해 150만 위안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등관시의 여성건강과 사회 공헌에도 주력하고 있음.

라. 오랜 경험·인지도 활용: 서울리거(상하이)⁶⁷⁾

- 서울리거는 한국의 BK성형외과 원장을 중심으로⁶⁸⁾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중국과 합자형식으로 설립한 대형 성형·피부미용 전문병원임.

61) Xinhua News Agency. (2014. 10. 8); China Daily. (2014. 10. 8)

62) 「东莞玛利亚妇产医院中韩整形美容科」(2013. 4. 23).

63) 「玛利亚(东莞)中韩整形美容中心」, <http://www.91160.com/dep/show/depid-3901.html>(검색일: 2015. 5. 27).

64) 등관마리아산부인과는 3급 병원인 ‘헤이룽장마리아산부인과(黑龙江玛利亚妇产医院)’의 계열병원이 아니지만, 병원명이 동일하므로 주의가 요망됨.

65) 「两岸首家合作妇产科专业医院在东莞设立」(2008. 11. 21). 등관마리아산부인과는 대만과 싱가포르 양측의 강점을 활용해 진출한 케이스로, 한국 의료기관 역시 중국 진출 시 다른 해외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 병원의 장점을 접목시켜 협력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음.

66) 中山医院, <http://www.csh.com.tw/index-1-1.php>(검색일: 2015. 8. 12).

67) 상하이 서울리거 관계자 인터뷰(2015. 5).

68) 한국 측 투자자는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 SK증권, 휴젤과 공동 설립한 엔지니스임.

- 한국 병원들은 투자 부담, 비준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해 원내원 방식 또는 중국인 명의를 이용한 우회적 진출을 많이 하는 편임.
- 그러나 BK성형외과(홍성범 원장)는 파트너 및 부지 선정, 병원명 변경 과정 등에 3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준비과정을 감수하고 중국의 제약회사인 '이자(意佳)투자관리유한공사'와 7(한국):3(중국)의 비율로 합자해 상하이에 진출함.⁶⁹⁾
 - o 외국 측이 70% 지분을 갖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 측 투자자가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겨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사되기 어려우며, 서울리거의 경우 한국 측에 대한 중국 측 투자자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1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2천 평의 부지에 6개 센터(성형, 피부, 모발이식, 안티에이징 등)와 스파시설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이러한 대형 성형병원은 중국에 거의 없는 상태임.

■ 중국에 대한 이해도 및 중국 내 인지도가 높아 정식으로 중국 진출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의료설비 및 중국인 의사 교육 등을 통해 중국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됨.

- 홍 원장은 청두(成都)시에서 약 10년간 출장진료를 해오면서 중국 의료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며, 중국판 '도전 신데렐라' TV 프로그램에 집도의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음.
- 반도체공장 수준의 무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첨단 의료설비를 갖추고, 한국의료수출협회로부터 '국제 성형외과 의사교육센터'로 공인받아 중국인 의사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음.⁷⁰⁾

5. 시사점

■ [시장] 각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발전 수준, 소득 수준, 외자의료기관 진출 경향 등 시장 특징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진출 시 이러한 특징에 유의해야 함.

- 상하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의료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세계 우수 외자병원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서울리거'처럼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의료기술·인지도를 갖춘 의료기관의 진출이 적합함.
- 장쑤는 민영병원의 진출이 활발하므로, '보바스병원'처럼 협력 파트너로 민간자본·의료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광둥은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이 활발하고 산부인과 수요가 많은바, '둥관마리아산부인과'와 같이 홍콩·대만·싱가포르계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식 및 산부인과 관련 의료서비스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하이난은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가 작고 소득수준이 낮아 영리성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이 부적당해 보이나, 의료기관 발전이 늦고 외자 의료기관도 거의 없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덜하고 선발(First Mover)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69) 현재는 중국의 의료미용 투자 전문회사인 BCC 등이 추가로 투자함.

70) 『서울신문』(2015), 「의사들의 전쟁」, (7월 17일)

■ [정책] 지역마다 의료서비스 육성 방향, 투자 장려 분야가 다른 점에도 유의

- 상하이시는 '아시아 의료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의료 R&D,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출이 필요하고, 노인간호·정신건강·재활·아동·산부인과와 같이 민영 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는 분야 진출이 용이함.
- 장쑤는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 확충 및 성형미용·양로 분야 민영 의료기관 진출을 장려하고 있어 '보바스병원'과 같은 양로·재활 관련 의료기관 진출이 용이함.
- 광둥은 '중의약 강성'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어 '메사추세츠 제너럴병원'처럼 광둥의 중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출을 반길 것으로 보임.
- 하이난은 종합·전문·중의 병원 및 재활·심혈관·당뇨·구강·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원하고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의 진출이 가능함.

■ [개방정책·의료단지] 특히 특수한 개방정책을 먼저 시도해보거나, 외자 의료기구 유치에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의료 단지를 조성하는 지역들이 있으므로, 각 지역의 정책 변화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함.

- '아르테메드 병원'은 중국 내 처음으로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상하이 시범구에 신속히 진출함.
- '상하이 신흥차오 국제의료센터',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는 우수 의료기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의사의 비자 처리 또는 의료기기 수입에 우대정책을 지원할 예정임.

■ [기타] 중국 진출 시 한국 의료기관은 진출 희망분야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대중국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진출형태도 한·중 병원 협력, 병원 대 병원 진출과 정부간 협력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중국을 한국 병원의 의료 '수출' 대상 지역이 아닌, '진출' 대상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측에서 바라보는 수출은 수출 관계자가 대상지역에서 창출한 이익을 본국으로 회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이러한 선입견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한국과 중국의 '동반성장' 이 가능한 진출을 선호⁷¹⁾
- 이에 중국을 내수시장으로 여기거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결합한 형태로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병원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특화된 진료과목 및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를 토대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향후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인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미용·성형시장 확대에 기인함.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병원이 중국 국내병원과 연계하는 의료관광 등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기관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병원간 협력과 정부간 협력(정부의 보조·협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료진 교육 연수, 위탁운영, 특성화 전문클리닉 설립 등을 통해 관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⁷²⁾
- 기존 국내외 병원 진출사례를 검토하여 병원진출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공략해야 함.

71) 한·중의료우호협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72)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11. 4).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동윤. 2014. 「中 ‘100% 외국자본 병원’ 설립 허용」.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2724891>(검색일: 2015. 4. 8).
- 김정덕, 박필재. 2014. 「빅뱅하는 중국 의료시장, 우리에게도 블루오션인가? 중국 진출 우리 병원의 경영실태 중심으로」. 『Trade Focus』, Vol. 13, No. 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머니위크. 2015. 「참튼튼병원, 중국 진출...중국 링베이병원과 한중합작계약」.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30308038036860&outlink=1>(검색일: 2015. 4. 8).
- 보건복지부. 2015. 4. 8. 「의료·제약·의료기기 등 K-Medi 글로벌 진출 확대」. 보도자료.
- 신혜권. 2015. 「건국대병원, 더클래식500·푸싱그룹 공동 중국 북경 진출」. <http://www.etnews.com/20150330002401>(검색일: 2015. 4. 8).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11. 4.
- 이병희, 강기우. 2008.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 이준혁. 2014. 세브란스병원, 中 칭다오 진출...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771541>(검색일: 2015. 4. 8).
- 이창진. 2015. 「중소 병·의원들 “해외 진출, 대형병원 전유물 아니다”」. 『Medical Times』. <http://www.medicaltimes.com/News/1096386>(검색일: 2015. 4. 8).
- ‘하이난성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설명회’ 자료(2015. 5. 18).
- 최창환, 김정덕. 2014.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향후 5년이 진출기회!」. 『Trade Focus』, Vol. 13, No. 3 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KOTRA 난징 무역관. 2014. 11. 5. 中 장쑤성 '스마트 시티' 발전 노선 공표.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0002&MENU_STEP=2&ARTICLE_ID=5021715.(검색일: 2015. 5. 30).

[영문자료]

- China Daily*. 2014. “US Hospital to offer Resources for New Facility in Guangdong.” http://usa.chinadaily.com.cn/world/2014-10/08/content_18708514.htm(검색일: 2015. 5. 28).
- Franck Le Deu, Rajesh Parekh, Fangnin Zhang, and Gaobo Zhou. 2012. “Healthcare in China: Entering ‘uncharted waters’”. http://www.mckinsey.com/insights/health_systems_and_services/health_care_in_china_entering_uncharted_waters(검색일: 2015. 5. 4).
- Fosh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N.d. <http://fipa.gov.cn/china-southern-biomedicine-city/>(검색일: 2015. 5. 28).
- Want China Times*. 2015. “First Online Hospital in China Starts Services in Guangdong.” <http://www.iresearchchina.com/news/6237.html>(검색일: 2015. 5. 28).
- Xinhua News Agency*. 2014. “Sino-American Hospital planned for South China.”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4-10/08/c_133700198.htm(검색일: 2015. 5. 28).

[일문자료]

野村高志·郭望. 2014. 「中国における医療業界への外資進出に関する最新動向と実務的留意点 - 日系医療機関にも独資病院設立のチャンス到来か」.

[중문자료]

- 「江苏：2017年个人卫生支出比重将在25%以内」. 2015. http://www.js.xinhuanet.com/2015-05/18/c_1115312681.htm(검색일: 2015. 6. 8).
- 「江苏省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实施意见」. 2011. <http://bjdoctors.com/News/Articles/Index/24>(검색일: 2015. 5. 30).
- 「江苏省县级公立医院综合改革试点实施意见」. 2011. <http://www.tzjybb.jys.gov.cn/detail.php?c=201811&i=209187>(검색일: 2015. 5. 30).
- 「江苏省颁布“十二五”儿童医疗事业发展规划」. 2011. <http://new.060s.com/article/2012/01/21/523831.htm>(검색일: 2015. 5. 30).
- 「江苏综合医改方案:构建分级诊疗 鼓励社会办医」. 2015. <http://js.people.com.cn/n/2015/0228/c360306-24015359.html>(검색일: 2015. 5. 30).
- 「江宁投14亿建医疗中心 服务200万人口」. 2013. 『南京晨报』. (5月 19日)
- 国家发展改革委员会. 2013.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产业准入目录」.
- 「国务院关于支持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开发开放有关政策的批复」. 2012.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182751.htm(검색일: 2015. 5. 29).
- 「关于印发广东省护理事业发展规划纲要(2011-2015年)的通知」. 2012. <http://www.gdwst.gov.cn/a/zcwj/201205179762.html>(검색일: 2015. 5. 29).
- 「广东广州国际健康产业城发展规划」. 2011. <http://wenku.baidu.com/view/0dcb1382ec3a87c24028c4cb.html>(검색일: 2015. 5. 29).
- 「广东省人民政府关于印发“十二五”期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实施方案的通知」. 2012. http://zwgk.gd.gov.cn/006939748/201301/t20130105_361974.html(검색일: 2015. 5. 29).
- 「广东省民营医疗机构蓬勃发展」. 2011. <http://www.moh.gov.cn/mohzcfgs/s9661/201205/54829.shtml>(검색일: 2015. 6. 5).
- 「广东省护理事业发展规划纲要(2011—2015年)」. 2012. (검색일: 2015. 5. 29).
- 「广东省“十二五”卫生科技发展规划」. 2012. (검색일: 2015. 5. 29).
- 广东省“十二五”期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实施方案. 2013. http://zwgk.gd.gov.cn/006939748/201301/t20130105_361974.html(검색일: 2015. 5. 29).
- 广东省疾控中心调查：85%广东居民死于慢性病. 2013. http://news.dayoo.com/guangzhou/201307/16/73437_31578817.htm(검색일: 2015. 5. 29).
- 「个人支出将不超30%公立医院改革试点扩大」. 2015. 『21世纪经济报道』. (5月 19日)
- 「南京江宁医疗服务中心开建」. 2013. 『南京日报』. (5月 19日)

- 「东莞玛利亚妇产医院中韩整形美容科」. 2013. 4. 23. http://i.dayoo.com/a/10001739_110006088.html?ctg=innews(검색일: 2015. 5. 22).
- 「玛利亚(东莞)中韩整形美容中心」. <http://www.91160.com/dep/show/depid-3901.html>(검색일: 2015. 5. 27).
- 「无锡国际医疗园签约落户」. 2013. <http://jsnews.jschina.com.cn/system/2013/11/08/019209094.shtml>(검색일: 2015. 5. 6).
- 「上海市卫生改革与发展“十二五”规划」.
秀屿民间联盟会. 2014. 「未来三年, 中国将有近20个医疗中心(健康城)拔地而起」. (7月 7日)
- 「城市公立医院改革, 有三大看点」. 2015. http://news.xinhuanet.com/mrdx/2015-05/18/c_134247301.htm(검색일: 2015. 5. 19).
- 「市政府关于促进本市生活性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新华网(2015.5.22), 「江苏11市入选公立医院改革国家联系试点城市」. 2015. http://www.js.xinhuanet.com/2015-05/22/c_1115371450.htm(검색일: 2015. 5. 30).
- 「深圳出台《特区医疗条例》 医师多点执业获得立法保障」. 2015. http://news.cnr.cn/native/city/201411/t20141126_516887863.shtml(검색일: 2015. 4. 3).
- 「两岸首家合作妇产科专业医院在东莞设立」. 2008. <http://www.chinanews.com/tw/lajl/news/2008/11-21/1457660.shtml>(검색일: 2015. 5. 27).
- 艾力彼·医院观察. 2015. 「2014“中国非公立医院·竞争力100强”榜单」. (3月 28日)
- 羊城晚报(2015. 3. 25), 「美国推新药, 横琴同步试」. <http://news.21cn.com/caiji/roll1/a/2015/0325/09/29276289.shtml>(검색일: 2015. 6. 23).
- 「延边州有望成为公立医院改革试点城市」. 2015. 『东亚经贸新闻』. (5月 19日)
- 「外来百货大鳄“水土不服”同质化或成行业待破命题」. 2014. 『羊城晚报』. (5月 30日)
- 医药网(2015. 6. 10), 「上海国际医学中心遇冷: 运行一年病床入住率仅一成」.
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促进深港合作工作方案. 2014. <http://kuaixun.stcn.com/2014/1204/11889440.shtml>
(검색일: 2015. 6. 10).
- 「中共上海市委、上海市人民政府关于贯彻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意见的实施意见」.
「海南省十二五期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划暨实施方案」.
「海南省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实施意见」.
「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医疗产业发展规划纲要(2015-2024年)」.
「香港和澳门服务提供者在内地设立独资医院管理暂行办法」. 2010. http://i.dayoo.com/a/10001739_110006088.html?ctg=innews(검색일: 2015. 6. 5).
- 「2013中国民营医院·竞争力100强」. 2014. 『健康界』. (3月 31日)

[웹사이트]

- 广州国际健康产业城发展规划. http://www.gd.gov.cn/tzgd/gdtzdt/201311/t20131106_188237.htm(검색일: 2015. 5. 22).
- 东莞玛利亚妇产医院. <http://www.dgmaria.cn>.
- 白云区人民政府. 2011. 「广东广州国际健康产业城发展规划」. <http://www.getdd.gov.cn/1294370044859/12943>

70167875/1294384217437/201309/t20130926_413067.htm(검색일:2015. 5. 22)
 上海国际医学中心(<http://www.simcgroup.com>).
 上海新虹桥国际医学中心(<http://www.nhqmed.com>).
 西太湖国际医疗产业园 홈페이지 <http://www.wez.gov.cn/NewsView.asp?NewsID=1312>(검색일: 2015. 5. 6).
 深圳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http://www.szqh.gov.cn>(검색일: 2015. 6. 10).
 中国经济社会发展统计库. <http://tongji.oversea.cnki.net>(검색일: 2015. 6. 10).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中国协和医科大学出版社.
 中国统计年鉴. 2014. (<http://www.stats.gov.cn/tjsj/ndsj/2014/indexch.htm>).
 中山医院. <http://www.csh.com.tw/index-1-1.php>(검색일: 2015. 8. 12).
 WHO statistics. <http://www.who.int/research/en>(검색일: 2015. 5. 28).

[인터뷰]

광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웨이자선 교류협력처 부처장 인터뷰(2015. 5).
 기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인터뷰(2012. 12).
 상하이 서울리거 관계자 인터뷰(2015. 5).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계자 인터뷰(2015. 5).
 이싱 보바스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5).
 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터뷰(2015. 5).
 하이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형우 연구원 인터뷰(2015. 5).
 한중의료우호협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C-MER 데니스 램 안과 류장닝 행정원장 인터뷰(2015. 5).